

북유럽 3개국 국외 연수 추진 결과보고

1. 개요

- 연수배경 :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복지예산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이에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북유럽 복지모델 연수를 통해 서구다운 복지 정책방향을 모색코자 함.
- 기 간 : 2023. 4. 13.(목) ~ 4. 22.(토) / 8박 10일
- 방문국가 : 복지선진국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참여인원 : 민·관 지역복지평가 유공자 20명
 - 인솔 : 김이강 구청장 등 4명
 - 구·동 지역복지평가 유공자 : 복지정책과 이해경 국장 등 14명
 - 민간기관 유공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재형 사무국장 등 2명
- 연수내용 : 복지선진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기관 및 반타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면담 및 해외 선진 행정 시찰을 위한 지역 문화 탐방 등
 - 국가별 조편성으로 각 국의 개괄적인 복지현황 및 정책 등 정보탐색
 - 일상생활 속 복지선진국을 체험하고 사전 조사 내용과 비교

2. 국외연수 담당 및 세부일정

- 방문국가별 담당현황

구분	1조(핀란드)	2조(노르웨이)	3조(스웨덴)
조장	김이강	고경애	이혜경
조원	문지현, 정영주, 김영주, 김애영, 박재형, 최주희	홍송림, 이귀업, 박현정, 정미희, 주하늬, 신여정	이세란, 김보나, 조혜미, 문부경, 김수현
분야	청소년, 청년 정책	북유럽 복지정책 및 제도	노인, 아동 정책

□ 세부일정

일 자	국가(도시)	주 요 일 정
1일차 4/13(목)	대한민국(인천)→핀란드(헬싱키)	인천출발 - 핀란드 헬싱키 (14시간 소요)
2일차 4/14(금)	핀란드(헬싱키)	오디도서관 - 학습과 창의성의 공간 헬싱키 시청 등 방문
3일차 4/15(토)	노르웨이	오슬로
4일차 4/16(일)		오슬로
5일차 4/17(월)	스웨덴	헬싱키 출발 - 노르웨이 도착 아동복지시설 방문
6일차 4/18(화)		오슬로 시청 및 오슬로 의회 방문 오슬로 출발 -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
7일차 4/19(수)		스톡홀름
8일차 4/20(목)	핀란드	Fryshuset 청소년센터 방문 Kollektivhus (co-hosing) Dunderbacken 방문
9일차 4/21(금)		헬싱키
10일차 4/22(토)	핀란드(헬싱키)→대한민국(인천)	Sigtuna Kommum 방문 아동복지시설 탐방
		스톡홀름 시청 스웨덴 스톡홀름 출발 - 핀란드 헬싱키 도착
		현지 유학생과 함께 하는 대담회
		Vantaa 시청 방문
		핀란드 헬싱키 출발 - 인천도착 (12시간 소요)

3. 국외연수 결과


□ 방문국가 일반현황

1.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Kingdom of Norway)	▶ 수도 : 오슬로(Oslo) ▶ 면적 : 38만6958km ² (한반도의 약 1.5배)
	▶ 일반사항 - 인구 : 538만명 - 언어 : 노르웨이어 - 종교 : 루터복음교 - 민족 : 노르웨이인 - 국경일 : 05.17.(1814년 헌법제정 기념일)
	▶ 경제현황 - GDP : 4824억\$ (2021, WB) - 1인당GDP : 8만 9202\$ (2021, WB) - 경제성장률 : 5.0%(2021, WB) - 교역 : * (2021,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 1595억\$ / 수입액 : 976억\$ - 실업률 : 5.0% (2021, WB)


<p>▶ 정치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주요인사 국가원수 : Harald V(하랄 5세)국왕(1991.01. 즉위) 총리 : Jonas Gahr Støre(21.10월 취임, 노동당) 외교장관 : Anniken Scharnning Huitfeldt (21.10월 취임, 노동당) - 의회구성 : 단원제(169석/임기4년), 9.13 총선 실시 / 10.14 신정부 출범 - 주요정당 : 우파연정(보수당, 진보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 9.13. 총선 결과에 따라 10월 중 좌파당 (최다득표) 중심의 新 좌파 연정 구성 예정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p>▶ 우리나라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계 1959.03.02. 외교관계 수립 1972.12. 주노르웨이대사관 개설 1980.06. 주한노르웨이대사관 개설 - 투자현황 (2021 누계, 신고 기준) 對노르웨이 : 98건, 19.88억불(수출입은행) 對한 국 : 196건, 5.72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역 : 교역현황(2021,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 8억 1400만\$ 수입액 : 29억 1900만\$ 수출품목 : 전기자동차, 선박, 승용차, 의약품 등 수입품목 : 원유, 기타어류, 백금, 선박 용부품 등 - 교민현황 : 7,744명(2021) 영주권자(351명), 일반체류자(400명), 유학생(127명), 시민권자(6,866명) <한국입양인 현황 : 6,517명>
--	---

2. 스웨덴

 <p>스웨덴왕국 (Kingdom of Sweden)</p>	<p>▶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 면적 : 44만9964km²(한반도의 약2배)</p>
<p>▶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1040만명 (2021.6월) - 언어 : 스웨덴어 - 국경일 : 06.06.(대 덴마크 독립저녁 승리 후 Gustav VASA가 스웨덴국왕으로 즉위한 날) 	<p>▶ 경제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6274억\$ (2021, WB) - 1인당GDP : 6만 28\$ (2021, WB) - 경제성장률 : 5.7%(2021, WB) - 화폐단위 : 크로나(SEK) - 교역 : * (2021,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 1897억\$ / 수입액 : 1866억\$ - 실업률 : 8.8% (2021, WB)

<p>▶ 정치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Carl XVI Gustaf 국왕(73.9 즉위) 총리 : 울프 크리스트손(Ulf Kristersson)(22.10월~) - 의회구성 : 단원제(349석), 임기 4년 사민계 : 사회민주당(107), 녹색당(18), 좌파당(24) 보수계 : 보수당(68), 기독교민주당(19), 자유당(16) 극우성향 : 스웨덴민주당(73) - 주요정당 : 중도우파(보수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연정) ※'22.9월: 총선실시, 22.10.18. 신정부 출범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p>▶ 우리나라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계 1959.03.11.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1963.07. : 주스웨덴대사관 개설 1973.07. : 주한스웨덴대사관 개설 - 투자현황 (~2021 누계, 신고기준) 對스웨덴 : 105건, 4.69억불 (수출입은행) 對한국 : 351건, 27.24억불 (산업통상자원부) - 교역 : (2021, 한국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 15억 2000만\$ 수입액 : 20억 4700만\$ 수출품목 : 전기자동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등 수입품목 : 승용차, 기타플라스틱제품, 의약품, 화물자동차 등 - 교민현황 : 13,055명 (2021년) 재외국민 : 2,018명 시민권자 : 11,037명 (해외입양인 8,922명 포함)
---	---

3. 핀란드

 <p>핀란드공화국 (Republic of Finland)</p>	<p>▶ 수도 : 헬싱키(Helsinki) ▶ 면적 : 338,145km²(한반도의 약 1.5배)</p>
<p>▶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559만명 (2021.7월 / CIA 추정) - 언어 : 핀란드어(87.6%), 스웨덴어(5.2%) - 종교 : 루터교(69.8%), 그리스정교(1.1%) - 민족 : 핀란드인, 스웨덴인, 사미족 등 - 교육 : 의무교육 9년 	<p>▶ 경제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 2988억\$ (2021, IMF) - 1인당GDP : 5만 4008\$ (2021, IMF) - 화폐단위 : 유로(EURO) - 교역 : * (2021, 한국무역협회) 수출액 : 818억\$ / 수입액 : 857억\$ - 실업률 : 7.6% (2021, IMF)

<p>▶ 정치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형태 : 의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대통령(2018.02.~ / 집권2기) - 총리 :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 (2019.12.~) - 외교장관 : 페카 올라비 하비스토(Pekka Olavi Haavisto)장관(2019.06.~) - 의회구성 : 단원제(200석), 임기 4년 - 주요정당 : 시민당, 중도당, 녹색당, 좌파연합, 스웨덴인당 5개 정당간 연정 구성 	<p>▶ 우리나라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08.24. 수립 1973.08.24. 주핀란드대사관 개설 1978.11.01. 주한 핀란드대사관 개설 - 투자현황 * (누계, 신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핀란드 투자 : 55건, 1.42억 불(수출입은행) 對한국 투자 : 121건, 3.5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역 : * (2021, 한국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액 : 5억 3100만\$ 수입액 : 8억 8200만\$ 수출품목 : 선박, 승용차, 전기자동차, 축전지 등 수입품목 : 니켈과 및 스크랩, 기타정밀 화학원료, 펄프, 전원장치 등 - 교민현황 : 850명(2021)
---	--

□ 국외연수 기관별 탐방 결과

① Fryshuset(프리슈세트) 청소년센터

(기관소개)

- 설립연도 : 1984년
- 설립자 : Anders Carlberg
- 센터 종사자 수 : 약 600여명
- 센터 주소 : Martensdalsgatan 2-8, 120 06 Stockholm (중산층 지역에 자리잡음)
- 기관 홈페이지 : <https://fryshuset.se>
- 기관 전화 및 메일 : 08-691 76 00 / info@fryshuset.se

우리나라 대안학교와 청소년 센터를 합쳐놓은 형태로 중도 학업 포기 자들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로 스웨덴 교육계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 받은 학교



- 사회적 기업가인 Anders Carlberg와 스톡홀름 YMCA의 공동 설립으로 정규 학교의 중도 학업 포기자, 다문화가정 학생, 비행청소년 등 사회에서 고립된 학생들을 위해 기초교육과 대안학교가 합쳐진 학교 형태(낡은 냉동창고에서 1984년에 처음 시작)

* 세계에서 가장 큰편에 속하는 청소년센터라고 지칭

- 설립자 정신(Fryshuset의 기본이념): “나의 일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초 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추어 준다면 일어설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 Fryshuset에서는 소외된 청소년의 통합보다는 포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청소년들을 포함시킨다는 건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정규 교과과정 외에 학생들이 운동, 댄스, 음악, 연극, 요리, 재봉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한다.
 -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기초학교 체제(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보충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 하는 청소년 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이다.
- 이 기관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청소년(~25세까지) 그룹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비행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 마약, 흡연, 성, 범죄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 이민자를 위한 입문과정에서는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역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사원이나 매장관리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며, 스톡홀름의 유명한 소매 체인과 협력하여 3년 후에는 총 24주간의 실제 경험을 할 수 있고 2학년 때는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다.
- 경제 프로그램(Ekonomiprogrammet)에서는 비즈니스, 산업 등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고용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후원을 받아 범죄/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지하철 안전요원, 청소년 상담 등을 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기관 운영)

- 재정은 정부지원,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학교 방문비, 연수비)을 통한 자체 기금 조성, 기부금, 교육·세미나 장소 임대료 등을 통해 충당하며 학생들에게는 무료 개방
 - 전체 운영비의 1/3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비
 - 전체 수입의 20~25%는 정부보조금 및 협력파트너 기부금 등으로 충당
- 2013년까지는 스톡홀름시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임대료 = 연간 26밀리언 크로나) 하였으나, 2014년부터 기부금을 받아 시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 하고 있다.

- 스톡홀름을 포함하여 코펜하겐, 말뫼, 예테보리 등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총 550명의 일반직원(Full time job은 470명)과 1,000여명의 자원봉사 직원이 함께 근무 한다.

(시사점)

- 지역 청소년의 필요에 맞게 활동과 보호, 방과후 교육, 대안교육, 학력 취득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용 프로그램, 약물·성 문제, 상담과 치료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같이 있을 뿐 시설이 나뉘어 있지 않다.
- 교육과 직업훈련이 구분되고 학교 안과 밖이 구분되고 방과 후와 아닌 것이 구분되고 심지어 활동과 상담이 따로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시설은 지역에 위치하고 지역 청소년의 현실적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Fryshuset처럼 빈곤 지역에서는 방과 후 사업과 고용 프로그램이, 중산층 지역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안교육 과정이 주축을 이루면서도 비행 청소년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처럼 지역의 모든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질문사항)

- Q. Fryshuset가 청소년 센터와 학교를 결해 놓은 형태라고 하던데 학교로서는 정규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A. 정규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에 맞춰 진행됨.
- Q. 50개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A. 참여하는 대상자가 합의에 의해 모든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Q.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가?
A. 국가보조(55%)와 기부금 등(45%)으로 진행되고 있음.
- Q. 최근 센터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
A. 비행청소년(총기 사용, 이민자 등으로 인한 새로운 청년그룹)들이 최근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음.
- Q. Fryshuset가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특성은 무엇인지?
A. 지식전달보다는 청소년들이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놀이처럼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성.
- Q.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
A. 차별없이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시대변화로 인해 경제적 갭이 발생함에 따라 방학때 청소년들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Q. 방문기관에 하고 싶은 말은?
A.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청소년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것.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워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열정을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



② Kollektivhus Dunderbacken (40+ 코하우징, 콜렉티브 주택)

(기관소개)

- 1968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건립된 건물로 스웨덴의 건축가 요한 아흐릴리우스 (Johan Ahrenlius)와 브린토르프 브로프스트 (Bengt Brodin)가 설계했으며,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커뮤니티 건물로 유명하다. Kollektivhus Dunderbacken은 스웨덴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공동체 삶과 지속 가능한 설계 등의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둔데르바켄’ (Dunderbacken)은 도심지에 위치, 60가구 70명이 모여 생활하며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거주자들은 욕실, 부엌, 침실 등이 갖춰진 개인 집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실이 있는 대형 거실, 주방, 손님방, 사우나, 재봉실, 운동실, 취미실 등을 공유하며 공용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스웨덴의 다른 공동체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은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 입주민들끼리 규칙을 마련해 공동생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거주자가 돌아가며 식사와 청소 당번을 맡는 자율 형태로 운영하는 등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합창단, 문학, 요가클럽 등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다.
- 노인들을 돕는 직원은 따로 고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생활, 식사 시간에 나오지 않거나, 공용 공간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웃들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병원에 데리고 감.
- 주소 : Hägerstensvägen 237 B-D, Hägersten, Sweden, 129 35
 - 전화(+46) 22-85-43-50/ FAX(+46) 22-85-50-28
 - 웹사이트 : www.dunderbacken.se
 - SNS : www.facebook.com/dunderbacken
 - E-mail : info@dunderbacken.se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 한국에 유사한 코하우징
 - 서울시가 추진한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로 2013년 도봉구에서 추진, 1, 2층은 경로당, 3, 4층은 주택으로 활용. 거실, 주방을 함께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2015년에는 금천구에 두 번째 두레주택이 공급됐다.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에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일명 ‘소행주’라 불리는 이 주택은 8~9가구가 한 지붕 아래 각자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지어진 집에서 살아가며, 2011년 성미산 마을에 소행주 1호가 건축된 이후 소행주 2~4호가 문을 열었다.

- 과주에 위치한 코하우징 마을인 도시농부 마을에는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뷔페 형식의 공동 식당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밥을 해 먹는 입주민보다 이웃과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또한 주민들은 피아노, 미술, 공예 등 자신의 재능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모임을 갖고 있다.

○ 핀란드의 코하우징과 차이점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스웨덴에선 월세를 내는 임대형 코하우징이 다수이지만 핀란드에서는 매매형이 대세이다. 매매형은 건물을 짓기 전부터 거주자를 모집해 각자 한 채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용 거실, 소파 종류, 벽지 색깔 등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정한다. 헬싱키에 있는 코하우징 코티사타마는 코하우징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만들어 반상회 일정, 모임 시간, 정기 건강 검진 가능 날짜 등을 모두 앱으로 공유한다.



3 스톡홀름 시청

(기관소개)

- 스톡홀름시는 스웨덴 스톡홀름주에 위치한 지방자치체로 면적은 육지와 수역을 모두 포함하여 214.63km², 인구는 984,748명(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밀도는 4,400명/km²으로 스웨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다.
- 스톡홀름 시청(Stockholm City Hall)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위치한 건물로 1923년부터 스톡홀름시의 정치와 문화적인 중심지로 사용되고 있다.
- 청사는 화려한 벽화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매우 아름다우며, 그중 블루홀은 1930년부터 매년 12월 10일에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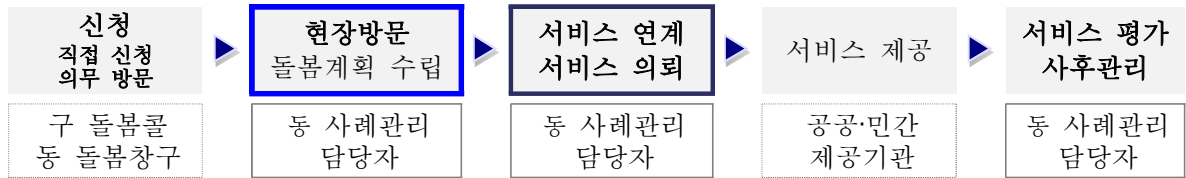
(복지제도)

- 스웨덴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1992년 아델 개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 요청에 따라 가정의 또는 간호사,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욕구를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간 교유 협력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협력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 체결하였다.
- 스톡홀름시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안 경보(도움 요청 알람), 홈 서비스(청소, 병원동행, 심부름 등), 집에서 구호
 - 주간활동(사고활동, 하루활동 선택), 반주(동반자 지원)
 - 단기 간호(요양원 단기 거주), 서비스 하우스(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홈 서비스 제공 받음), 요양원
 - 여행 서비스(운송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도구 지원
 - 음식과 식사(고령자를 위한 레시피,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한 e-서비스 제공 등)
 - 디지털 일상(음식과 약을 쇼핑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학습 자료 제공)
 - 디지털 픽서 서비스(앱 다운로드, 화상 통화 사용,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들음)
 - 해결사 서비스(68세 이상 일상적인 집안일 도움 지원, 전구 또는 커튼 교체 등) 등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광주 시민 누구나

- 5대 영역 : ① 영유아, ② 아동·청소년, ③ 노인, ④ 장애인, ⑤ 1인가구(청년·장년 등)
- 선정기준: 소득·재산·연령·장애 무관 / 돌봄이 필요한 정도(독립적 일상생활 수행가능도 등)
- 서비스신청: 시민 직접 신청(구 돌봄콜, 동 돌봄창구 등) + 의무방문으로 사각지대 발굴
- 서비스절차: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돌봄 계획을 수립→ 제공기관(협력)→ 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 ① 기존돌봄 우선 연계 우선, 기존 제도권 서비스부터 누수 없이 신속 연계
 - ② 틈새는 광주+돌봄 기존 제도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 시간, 종류 등에 대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자치구별 제공기관 선정)
 - ① 가사지원, ② 식사지원, ③ 동행지원, ④ 건강지원, ⑤ 안전지원, ⑥ 주거편의, ⑦ 일시보호
- 서비스비용: 서비스별 상이
- 비용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지원, 85% 초과 전액 본인부담
- 비용지원 범위: 1인당 연간 지원한도 150만원 이내 ※ 위급상황 시 150만원 내 추가 지원
 - ③ 위급상황은 긴급돌봄 긴급 위기상황, 민간 돌봄기피 등으로 기존 또는 광주+돌봄을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제공(사회서비스원 위탁)
- 소요예산 : 2,000,000천원(시 75%, 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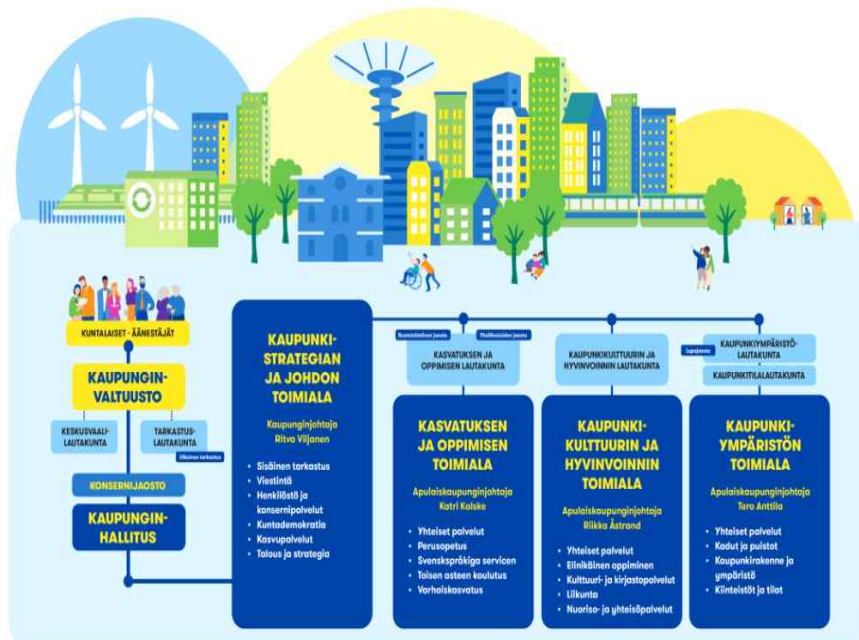
4 반다시청(city of Vantaa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기관소개)

- 헬싱키 내 면적 240km로 4째 규모의 큰 도시로 반타시민을 위해 건강, 복지 서비스 등 많은 공공 서비스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지방행정조직.
 - 반타 시의 지리적 특성
 - 다문화 도시에 해당되며 공용어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사용하나 100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가족, 건강, 복지 등 핀란드 반타시의 주된 행정적 서비스 지원하는 행정기관. 건강' 과 '복지' 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며 자연여건상 우울증 환자가 많아 심리상담전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선 상담을 진행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내 국제공항, 철도 소재지로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도시로 성장 중. 수도권(헬싱키, 에스블라, 반타) 3개 도시 연합체를 구성하여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주요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수행 중
- 주소 : Peltolantie 2 D, 01300, Vantaa
 - 전화(+46) 31-786-0000 / FAX(+46) 31-786-4655
 - www. vantaa.fi

(조직구조)

영역	주요 역할
건강/복지	응급처치 및 긴급전화, 사회 및 위기 비상사태, 건강상담(정신건강, 약물 남용 등 다양한 건강관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지원 서빙, 사회적 지원 등
유아/교육	기초교육, 교육준비,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한 지원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장려, 웰빙을 강화하여 성장과 학습을 위한 좋은 조건을 지원
주거/환경	토지 이용계획, 주택 보조금 지원 및 대출, 거주와 관련된 환경 서비스 제공
여가/웰빙	· 도서관 및 문화, 운동, 공동체 정신 및 웰빙 등 여가문화 활동 지원 영화, 웰빙 멘토링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 · 지역 자연 및 스포츠 시설 관리 지원,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활동 및 다양한 전문적 가이드 지원
일과 기업가정신	주민들의 구직활동과 자신의 기술개발을 지원, 기업가와 기업을 위한 도움과 네트워크 제공
도시와 의사결정	협력과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 가족서비스

- 사회복지, 연금, 아동보호, 약물, 서포트하우징, 서비스 직접구매
- 공공부조서비스 : 지원이 필요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을 상담, 조사, 지원 필요 시 Kela로 연계, 확인 후 대상자에 지원금이 투자
- 아동지원서비스,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 약물중독가정 지원,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등 제공

○ 노인, 장애인 서비스 : 노인 서비스의 기본 목표는 가능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기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

○ 사회 및 위기 응급서비스

- 사회위기응급센터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응급상황 전문가가 함께 근무
- 아동보호(기본적인 아동보호시설의 업무시간 외에 개입)와 가정폭력, 갑작스런 재정위기에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을 위해 작동

○ 주거지원(Support for housing)

- 주거 없고 위급한 시민에게 주거공간 연계, 안정적 주거지원, 노숙방지를 위한 금전지원 아닌 연결 역할

○ 원스탑 서비스 지원

(시사점)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일화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 신청이 용이 : 모든 서비스 신청은 “Kela”
-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수혜자에게 단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의의사결정에 대한 존중함은 물론 수혜자의 낙인감이 없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짐
- 북유럽국가들이 대부분 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성으로 반다시청 또한 여성과 아동 중심의 배려공간 및 물품 비치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등은 아동과 여성, 나아가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사회위기응급센터 체계 : 법 규정에 의해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위기대응 후에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지원,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스태프들과 worker들의 회의와 결정에 따라 지원



5 오흐야모(Ohjaamo) 원스톱 안내센터

(기관소개)

-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오흐야모’ (Ohjaamo)라는 이름의 원스톱 안내센터 설립 프로젝트임
- ‘조종실’을 뜻하는 오흐야모는 이 센터가 청년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조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여짐
- 오흐야모센터는 취업·경력 관련 서비스, 창업·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교육컨설팅,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관료적 요소를 최소화해 29살 이하 청년 누구나 예약 없이 이 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음
- 2018년 수도 헬싱키에 처음 설립된 오흐야모센터가 성공적인 성과를 올린 뒤, 전국 60곳 넘는 지방정부에 이 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임
- 오흐야모센터가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며 기관 간 협업을 바로바로 실시하기 때문임
- 이 센터에는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자, 중앙정부 조직인 사회보험청 (KELA)과 고용서비스사무소 전문가, 민간기구 전문가 등이 함께 파견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 교육, 의료, 창업 등 관련 서비스 전문인력이 추가로 고용함

(시사점)

- 복지국가에 걸맞게 사각지대로 인식된 청년들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인상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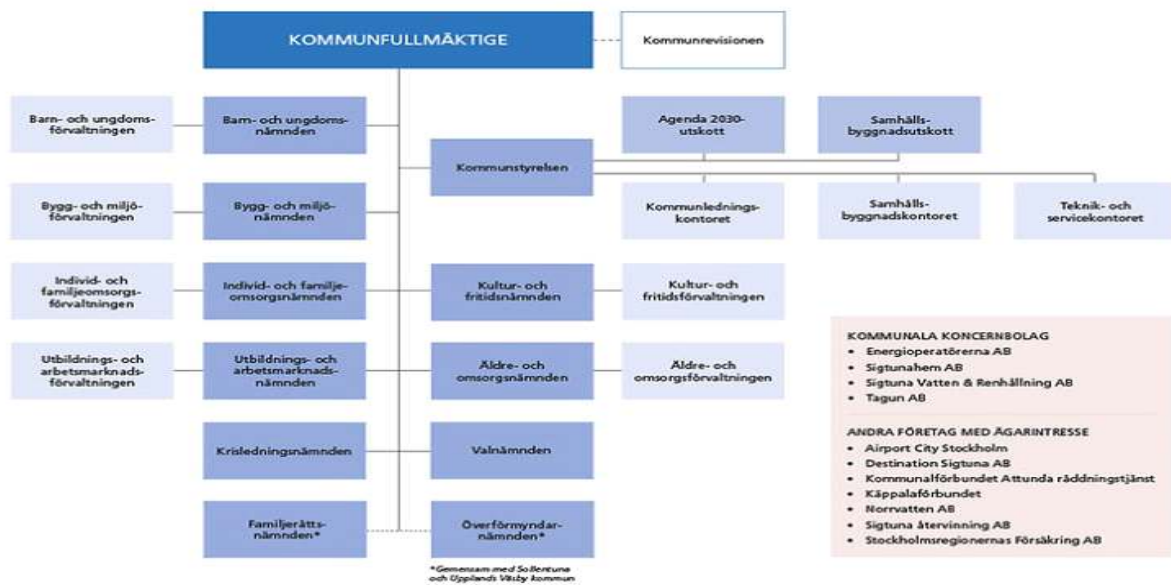
⑥ 시그투나(Sigtuna Kommun) 지방자치단체

(기관소개)

- Kommun은 지방자치단체로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노인돌봄, 상하수도 및 거리, 주택계획, 도서관, 레저시설 등을 담당하며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조직
 - 4년마다 주민들이 총선에서 그들을 대표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정치인을 선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결정하는 위원회 및 이사회를 선출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직
- 9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
 - 아동 및 청소년서비스, 개인 및 가족관리, 문화레저행정, 교육 및 노동시장 관리, 노인사회복지행정, 시정촌 지원, 건축 및 환경관리, 커뮤니티 기획사무소 등
 - 2023 4월 현재 3,026명의 직원이 근무 중
- Sigtuna 지방자치단체는 Marsta(메르스타), Rosersberg(로저스버그), Valsta, Arlanda 등의 도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51,876명의 주민이 있으며 평균 연령은 38.3세의 젊은 도시, 49%는 여성이며 51% 남성이 거주중, 24% 17세 이하이며 61.5%는 18~64세, 14%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 주민의 60%는 메르스타에 거주중이며 20%는 시그투나 시에 15%는 로저스버그에 살고 있음.
- 주소 : Sodergatan 20, 메르스타Sigtuna
 - 전화 08-591-260-00
 - www. sigtuna.se / 이메일 : kontaktcenter@ sigtuna.se

(조직구조)

영역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결정하는 행정 조직 · 의사결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인이 내린 결정을 이행하고 이행,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계획, 주도 및 조정할 책임이 있음. · 공무원으로 구성, 학교 및 보육, 거리 및 공원, 환경 및 건강보호, 문화 및 레저시설 등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
시정촌	시의회와 야당의회로 구성 시의원은 시정촌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직무를 수행
시 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명의 집행위원과 15명의 교체위원으로 구성 · 3개의 위원회로 구성 : 실무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의제2030위원회 · 시 전체의 전반적인 관리, 시정촌의 재정관리, 주택공급, 기술적 문제, 부동산 문제, 정보 및 비즈니스, 교육 및 노동시장 문제 등을 심의 결정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 긴급구호, 위기관리 : 사회 응급서비스, 경비원, 여성쉼터 및 남성쉼터 운영
 - 긴급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외래 진료기관과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안전 및 보안 : 보안문제, 범죄예방, 위기대비 및 민방위
-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 : 아동학대 의혹, 가족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 소비자 지침 : 불만 및 계약분쟁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의 위해
- 경제, 수입 지원 : 사회지원, 재정지원, 예산 및 부채 조언, 기금
- 어른서비스 : 노인지원, 만남의 장소, 치매정보
 - 노인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시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
 - 재가서비스, 만남의 장소를 통해 다양한 활동 제공, 노인 문화서비스, 안전벨소리, 수혜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이 포함.
- 이민 및 통합 : SFI-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통역사
- 숙박시설, 특별 주택 : 은퇴주택, 적응 주택, 가족주택, 특별 서비스 주택
- 여행, 교통 및 방문 : 교통서비스, 에스코트, 장애인 주차카드, 정기여행
- 의료 지원: 건강관리법에 건강 및 의료가 지자체 책임을 되어 있음.
 - 노인 요양원 숙박, 집단주택의 주택, 사회정신과 특정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서비스 주택에 거주하는 재택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의학적으로 책임있는 간호사, 재활의료 책임자로 구성
- 법률지원, 결혼, 이민, 학대와 의존 등



7 아동복지시설-비요르켄

(기관소개)

- Msrsta중심부에 의치하고 있으며 숲과 녹지를 활용한 아동 보육 및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 교장이 모든 시설의 권한이 있음.
 - 주 교육커리큘럼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나 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장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진행
- Bjorken유치원은 100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아동과 부모에서 서비스를 제공
 - 단원과 연결된 Pedagogista와 Ateljerista가 감독
 - 시립유치원으로 Sigtuna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플랫폼
- 단순히 아동 돌봄과 보육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부모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 교육자, 어린이, 보호자가 서로를 알고 지내며 모든 것들을 합의로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있음.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 6:30~18시
- 주소 : Dragonvagen 45A, SE-195 43,, 메르스타
 - 전화 08-591-269-03
 - www. sigtuna.se / 이메일 : linda.bjornskjold@ sigtuna.se <관리자:Li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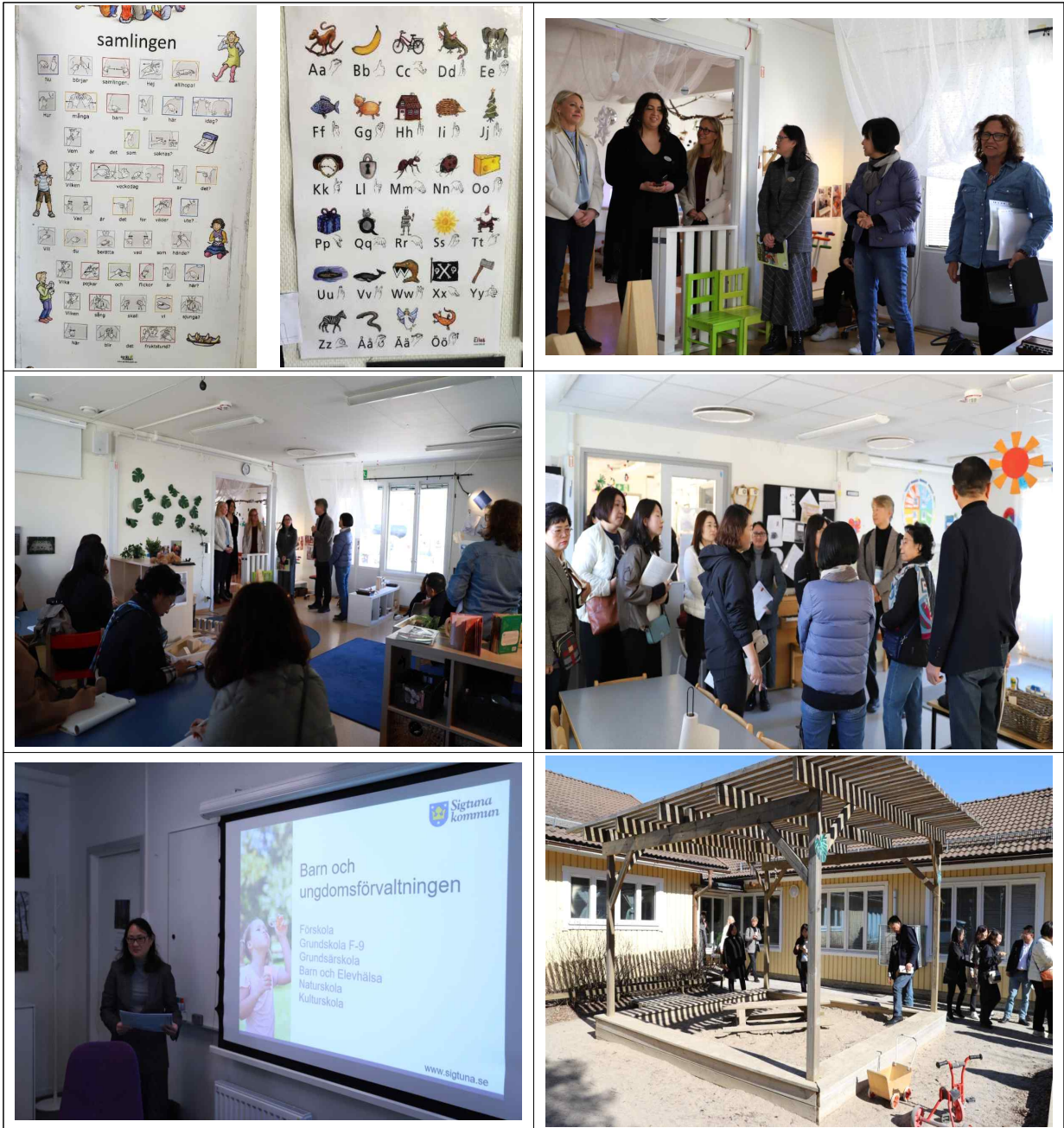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 아이들의 생각, 호기심, 질문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 탐구, 학습, 놀이, 상상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
- 유연근무에 맞춰 6:30분부터 Green부서에서 아이들을 맞이해서 그림그리기, 퍼즐맞추기, 동화읽기 등 다양하고 조용한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
 - 좋은 환영과 차분한 아침을 아동에게 제공해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줌
- 아동 스스로 실내외 모든 환경을 활용해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구성, 놀이를 교육의 중심적 위치에 두고 학습
- 자연친화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아동의 나이와 필요에 따라 각 부서에서 아이들의 휴식과 교육과정을 담당해서 진행

(시사점)

-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짓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동시기에서 부터 교육시키고 있음.
 - 아이들의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수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장애가 틀림이 아님 다름이라는 교육을 어린나이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됨.

-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모든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에는 현광색 보호조끼가 의무착용이라는 점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있음.
- 학교장에서 교육과정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줌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평가에 대한 주민 및 기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 또한 공명정대하다는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본받아야 할 점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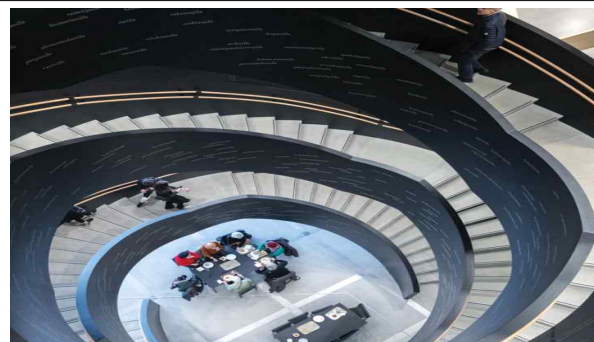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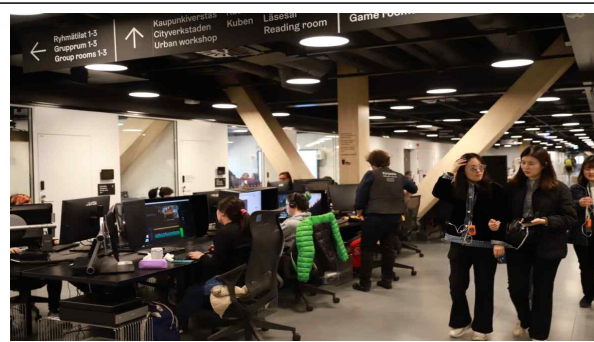
8 Oodi 헬싱키 도서관 : 복합문화공간

(기관소개)

- 헬싱키 칸 살라 스키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 1층에는 영화관 및 카페, 2층에는 창조 공간, 3층에는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시, 찬양의 시, 찬송의 의미로 핀란드가 1917년 러시아 독립 100주년기념으로 모든 시민, 모든 인종,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로 “Oodi” 로 명칭
- 마야딸리라는 이름을 지은 예술공간에서 영화관 및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헬싱키 내 학교 및 탁아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을 위한 많은 교육 활동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음
- 학교 수업을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여 정보 검색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도서관 3층에 위치한 스토리텔링 룸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 공간의 기능을 수행 중
- 지하층에는 화장실로 알라라는 건축사무소와 YIT, 집을 짓는 회사가 합작해서 지은 곳으로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2000개의 아이디어를 먼저 받아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디자인 설계 후 그에 맞춰 건물을 짓고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맞춰서 지어 화장실의 세면대 또한 연령대에 맞춰 높낮이가 다름. 남녀노소 평등을 나타내고 있음.
- 주소 : TOOIDnlahdenkatu 4, 0100
 - 전화(+46) 09-310-58000
 - 웹사이트 : www.dunderbacken.se
 - 홈페이지 : www.oodihelsinki.fi

(시사점)

- 도서관이 단순 책의 대여와 교육의 공간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음.
 - 가족친화적인 핀란드 문화가 도서관에서도 찾아 볼수 있음
 - 유모차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 각종 대여품 등 개인들의 욕구가 잘 반영된 체계가 인상적이었음.
- 다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조성, 건물의 취지에 맞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건물 곳곳에 보임.(나선형 계단의 글귀-전 세계 언어로 쓰인 단어, 높낮이가 다른 세면대 등)
- 강의, 워크샵, 공연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영화관, 유리벽으로 된 회의공간, 소그룹 주방공간, 다양한 크기의 단체객실, 별도의 독서실, 열람실, 발코니, 게임룸, 녹음 및 사진 스튜디오, 아동들을 위한 동화실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 도서관의 장서가 인근 도서관 3~4권이 함께 공통이 대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대형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서의 양보다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대한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실용주의적인 핀란드인들의 특성을 볼수 있었음.



9 기타 주요시설 및 기관 견학

□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 1층의 메인 홀에서는 매년 4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데, 특히 1990년 이후부터 노벨 평화상의 시상식장으로 이용되어 매년 12월 10일에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행정공간과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함께 있는 공간
-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된 대표적인 '열린 공간'이다. 전 세계 시청사 건물 중 관광객들에게 중요 시설을 무료로 자유롭게 개방하는 곳은 오슬로뿐. 외관부터 내부까지 모두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독립한 조국에 바치는 노르웨이 예술가들의 역작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시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 시의회 건물이 시청사 내에 있으며 실용주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공간.
- 주소 : Rådhusplassen 1



[몽크박물관]

- 몽크의 작품들만 전문으로 전시하는 미술관. 1944년 몽크가 사망하며 오슬로 시에 기증한 그림, 인쇄물, 유품 등을 바탕으로 하며, 1963년 동부 퇴엔 지구에 처음 문을 열었다. 40년이 지나며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한 증축이 계속해 거론되었고, 오페라 하우스 옆에 11층 규모로 신축한 오슬로 시 대표 건축물
-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소 : Brynjulf Bulls plass 3, 0250 Oslo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 바다위에 떠 있는 얼음 형상의 문화의 전당,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현대적인 문화복합시설
- 196노르웨이 국립 오페라와 발레단이 염원했던 전용 공간은, 스넨헤타(Snøhetta)의 설계로 2008년 완공된 후 오슬로를 대표하는 '신 아이콘'이 되었다. 바다 위에 하얀 카펫을 깔아 놓은 듯한 외부에는 약 36,000개의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화강암, 울록볼록한 메탈 소재가 퍼즐처럼 맞춰져 있고, 내부에는 독일산 참나무를 이용해 따뜻하면서도 유연한 곡선의 느낌이 전해짐
- 이곳의 포인트는 열린 공간을 상징하는 '지붕'으로, 그 위에서 여유와 햇볕을 즐기는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늘 가득. 심지어는 저스틴 비버를 비롯한 유명 가수들이 지붕 위에서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유명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
- 주소 : Kirsten Flagstads Plass 1



□ 스웨덴

[웁살라대성당]

- 750년의 역사를 지닌 현재 북유럽 최대 규모의 대성당. 1273년 구시가지에 세워진 옛 성당을 지금 장소에 그대로 옮겨서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흑사병 등의 문제로 1435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완공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로 지어졌지만, 15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루터란의 대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금의 모습은 1880년대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신고딕 양식으로 완성되었으며, 탑의 높이는 최대 118.7m에 달한다. 스웨덴의 첫 번째 왕이었던 구스타프 바사 왕 부부와 식물학자 린네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음.





[바사호박물관]

-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으로, 바사왕가의 구스타브 2세(Gustav II)가 재위하였던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10일 처녀항해 때 침몰한 전함 바사호(號)가 전시된 곳으로, 스톡홀름의 스칸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90년 7월 15일에 개관함.
- 바사는 길이 69m, 높이 48.8m, 탑승가능 인원 450명, 탑재 가능 대포 수량 64개에 이르는 거대한 배로 제작되었으며, 동시에 300kg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귀빈 등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수식을 하자마자 열린 포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수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배에 승선하고 있던 150여 - 37명 중 30여 명이 익사했다
- 지금의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라울발렌바리공원 옆 발트 해 염도가 낮고 진흙속에 있어 배 보존. 배건조 3년, 30년 걸려 인양, 17년 약품처리 1628년 바사호 스톡홀름 항에서 출항과 동시 바다속 좌초, 333년 후인 1961년 인양 원형의 98% 복원.





[스칸센박물관]

- 1891년에 지어진 규모 300,000m²의 세계 최초 야외 박물관으로, 아르투르 하셀리우스에 의해 스웨덴 전국 곳곳의 전통 가옥 150채와 나무, 동물들로 조성된 곳.
- 특히 17~19세기의 생활 모습을 전통 의상과 함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19세기 분위기의 빵집과 유리 · 도자기 공방, 농장, 교회를 비롯해 북쪽 노를란드부터 남쪽 섬 고틀란드까지의 지방별 가옥, 야외 동물원 등 다양하게 구성
- 주소 : Djurgårdsslätten 49-51





□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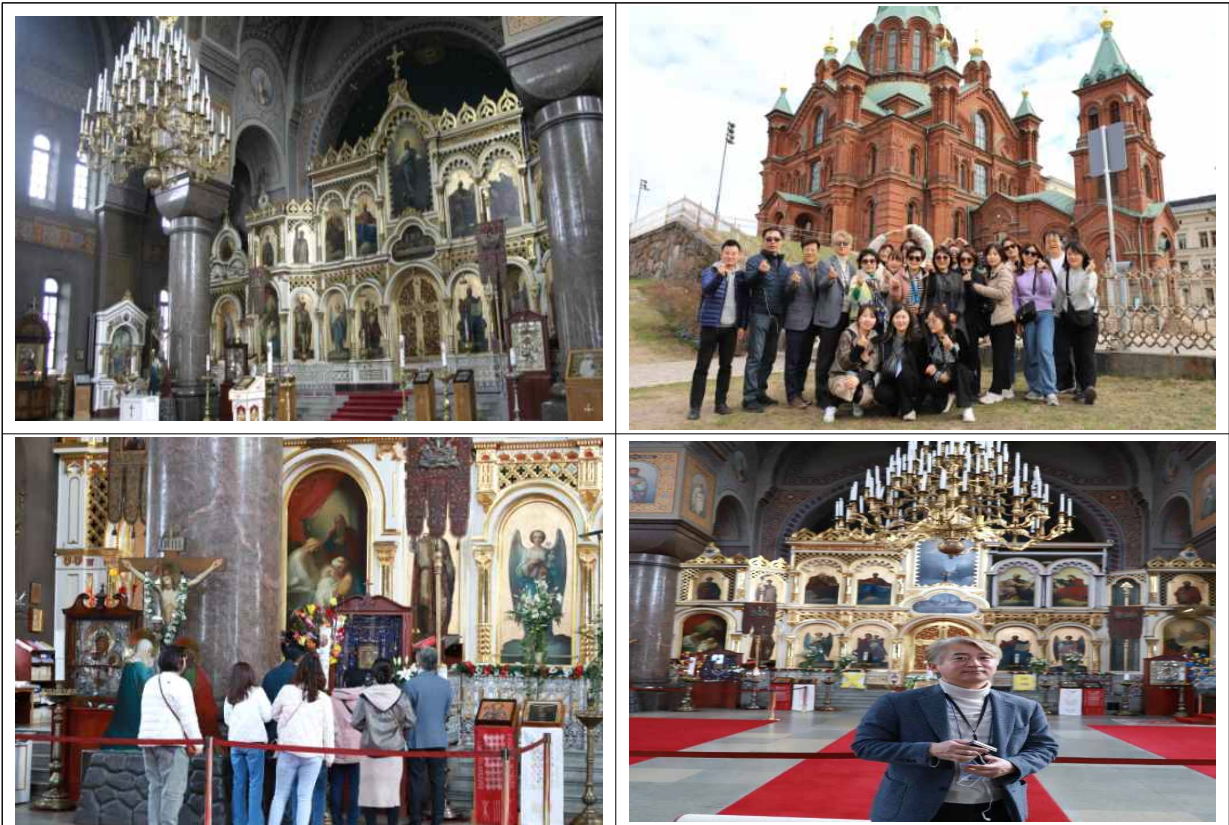
[헬싱키 대성당]

- 1852년에 완공된 이 성당은 핀란드 루터교회 헬싱키 교구에 속해 있으며 일요일 오전 10시에 주일예배가 있다. 성당 지붕에 있는 12사도의 조각상들은 마치 도시를 수호하듯 광장을 굽어보며 지하에는 작은 예배당과 전시공간,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카페 등이 있다. 원로원 광장 중앙에 있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2세 동상이 있음
- 러시아에 의해 계획되어 조성된 공간답게 원로원광장, 헬싱키 대학, 헬싱키 시청 등을 주변에 두고 있음. 헬싱키의 랜드마크같은 공간



[우스펜스키사원]

- 1868년 완공된 우스펜스키 사원은 서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교회 성당으로 과거 핀란드를 지배했던 제정러시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지붕 위의 금으로 덮인 쿠플라들과 인상적인 붉은 벽돌 건물은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파사드는 클래식한 슬라브 양식으로 화려한 내부는 비잔틴 양식으로 꾸며짐.
- 성모승천을 기념하여 비잔틴 슬라브 양식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식 공간. 헬싱키 대성당과 함께 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대표적인 곳
- 주소 : Kanavakatu 1



[시벨리우스 공원]

- 핀란드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 시벨리우스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을 다수 작곡해 핀란드인 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곳에는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기념비와 시벨리우스 동상이 있다. 600여 개의 강철 파이프로 이뤄진 기념비가 특히 인상적임.
- 이곳의 포인트는 열린 공간을 상징하는 '지붕'으로, 그 위에서 여유와 햇볕을 즐기는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늘 가득. 심지어는 저스틴 비버를 비롯한 유명 가수들이 지붕 위에서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유명해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



[헬싱키 대학교]

- 185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공립대학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 중심 대학. 개교 이래 필즈상, 노벨상 등 뛰어난 업적을 남긴 동문들을 배출.
- 1640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명령으로 오보(Åbo)에 오보 왕립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투르쿠 대화재 이후인 1828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투르쿠에서 헬싱키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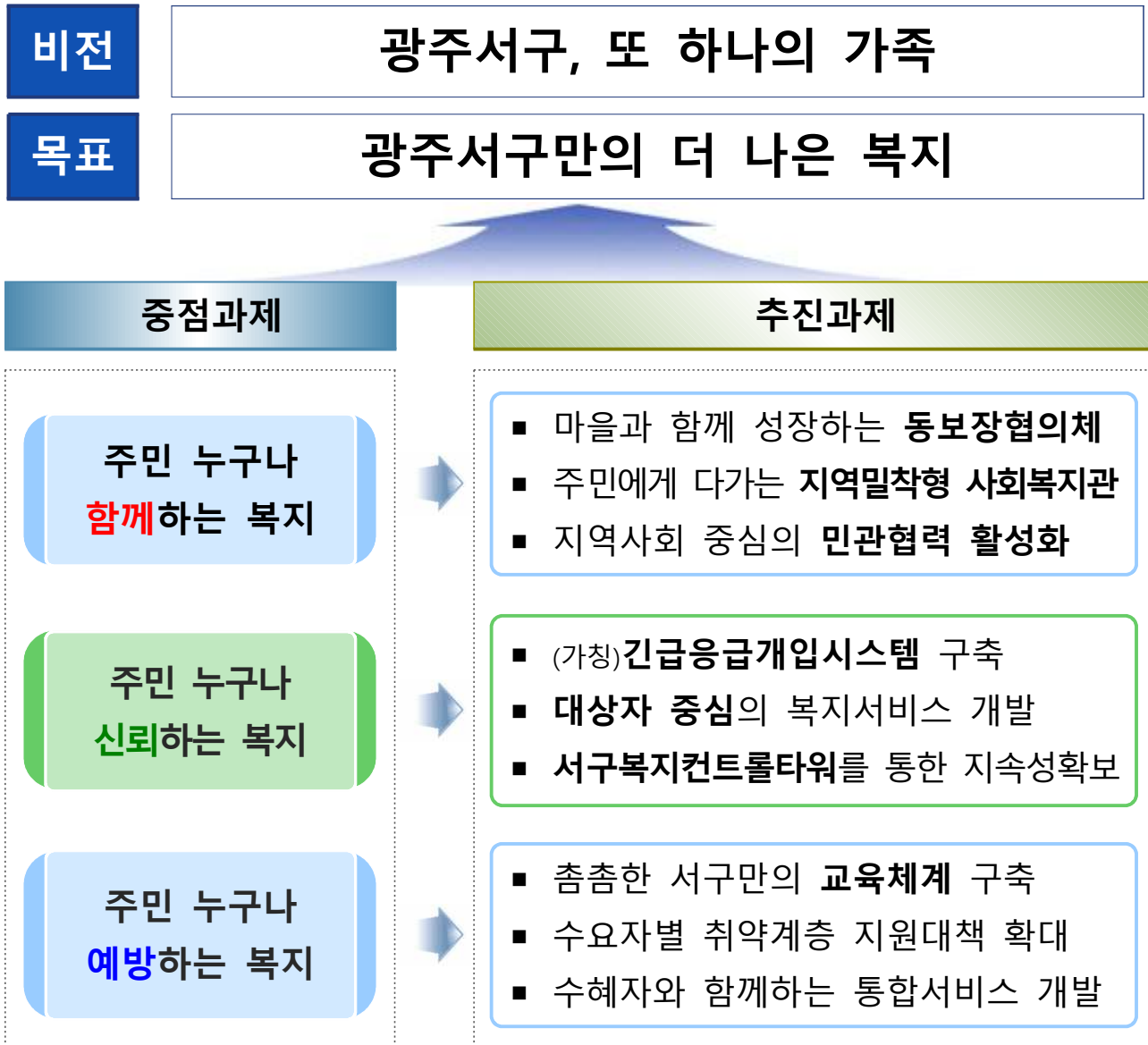
4. 북유럽 국외연수의 시사점

- 투명한 행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토론문화
⇒ 주민들에게 신뢰있는 행정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명한 복지행정** 방안 마련
- 가족 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
⇒ **수요자 욕구 파악**에 중점을 둔 양질의 복지서비스 개발
- 다양성의 인정과 통합적인 지원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의식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 일자리, 주거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선진 복지서비스
⇒ 단순지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수혜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

□ 참여자들의 연수평가에 대한 핵심키워드

- 신뢰 : 15명
- 평등(차별없는) : 9명
- 교육, 도서관 : 8명
- 열정 : 6명
- ⇒ **신뢰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가족중심의 일상생활 속 삶의 질과 개인의 성장(열정)을 키우기 위한 나라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5. 우리 구 적용방안



□ 광주서구만의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복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웃을 이웃이 서로 살피고 돌보며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복지마을을 구축

가. 제2의 도약,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동보장협의체

더 촘촘한 복지마을,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마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이 되는 동 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

나.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밀착형복지관 운영

복지관 3대기능사업에 벗어나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을 구축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활성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구 중심이 아닌 동 또는 지역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 방안 마련

□ 광주시구만의 주민 누구나 신뢰하는 복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 및 정확하고 지속성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행정의 신뢰를 회복

가. 긴급응급개입시스템 구축

동(맞춤형복지팀), 구(희망복지팀, 아동보호팀 등) 등 업무를 통한 구분 보다는 통합적인 긴급응급개입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안전 강화 노력

나. 대상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개발

계층별 구분을 통한 서비스 지원보다는 대상자 욕구(열정)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개발

예) 대상자 중심의 보편적복지서비스 개발 : 청소년 놀이프로그램, 재가양육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수화를 활용한 아동놀이프로그램 등

다. 서구복지컨트롤타워를 통한 복지행정의 지속성 확보

칸막이행정 및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의 신뢰 향상

□ 광주시구만의 주민 누구나 예방하는 복지

복지에 대한 주민 인식변화로 복지가 권리가 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

가. 촘촘한 서구만의 교육체계 구축

복지영역의 확대에 발맞춰 주민, 공무원, 복지실천가 모두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토달 복지교육 체계를 구축

나. 수요자별 취약계층 지원대책 확대






민관 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소득재산기준이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책을 마련

다. 수혜자와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개발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아닌 대상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의 노력

6. 한마디로 정리한 북유럽 소감

성명	인상 깊은 점 또는 느낀 점
<p>김이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신뢰 2.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통합교육 3. 아이들이 행복에 중점을 두는 나라 4. 직원과의 소통
<p>정영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행정 2. 수요자 중심 행정(물어본다) 3. 민주적 절차 4. 행복의 가치 5.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통합행복 정책
<p>고경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와 투명한 행정 2.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3.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p>이귀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등한 사회 2.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3.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시스템 4. 신뢰가 기본이 되는 사회문화 5. 가족친화적 도서관
<p>이혜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려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하는 사회 2.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없는 행정 3. 자연친화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방식 4. 청소년에 대해 편견 없이 믿음으로 자존감을 키워주고 관계(relationship) 유지 중요시함 5. 고령 어르신들의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모습 6.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문화 7. 이색적인 도서관(넓은 공간,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하며 문화센터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성명	인상 깊은 점 또는 느낀 점
<p>문지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 2. 자연친화 3. 토론과 합의 4. 평등 5. 도서관 6. 함께 7. 관광자원
<p>홍송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명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2. 단순한 서비스 전달체계(현금-국가, 서비스-자치체 / 서비스 신청은 한 곳에서) 3. 일자리와 연결된 복지,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국민의식 4. 다양성과 열정을 키워주는 교육방식 5. 교육과 가족을 기반으로 국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국가의 체계 6. 장애와 비장애, 남자와 여자, 한부모, 다문화 등 차별없는 평등 7. What과 How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책임
<p>이세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씨앗활동의 필요성 2. 통합교육의 중요 & 필요성 3. 자연주의 학교, 숲학교와 연계, 흙에서 놀수 있는 환경조성 4. 열정, 청소년을 믿어주는 신념, 릴레이쉽의 대중화 5. 아이존중, 배려의 사회분위기 형성
<p>김영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들이 하루 두 번 의무적으로 하는 야외활동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자람. 2. 타인에 대한 배려 신뢰 3. 남녀가 평등한 육아부담 4. 청소년들의 하고 싶은 걸 결정하여 미는 800여개 프로젝트 5. 도서관이 가고 싶은 공간
<p>김애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없는 평등한 문화 - 남녀, 장애인 등 2.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가 밑바탕이 됨. 3.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4. 어렸을 때부터 자연 친화적 활동 및 도서관을 내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성명	인상 깊은 점 또는 느낀 점
<p>김보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2.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주체가 논의하고 찾아보기 3.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지, 강화시켜주기 4. 예방정책 5. 어떤 대상자든지 거주지 확보 6. 창의성 + 발견 + 호기심 7. 전달체계의 간소화
<p>문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2.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 3. 다양성(학생뿐만이 아닌 노인, 유모차 끌고오는 부모 등)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4.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있는 복지행정 5. 유능한 리더, 중간관리자는 열정이 있는 사람
<p>박현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자 욕구(원하는 바)에 대한 파악이 우선 2. 문제에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이해와 양보, 설득, 수용 3. 열정있는 한 명의 나비효과 4.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이 있음. 5. 삶의 모든 결정의 기본은 자기결정권, 그것에 대한 존중
<p>조혜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회 2. 민주적인 의사결정(대화, 논의 등) 3.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통합교육 4. 청소년 투자는 항상 페이백이 된다. 5.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일원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라 6. 고용률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
<p>주하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게 무엇인지 찾아주는 것, 능력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는게 초점 2. 다양성 3. 장애를 오픈시켜야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다. 4. 지향하라고 하지 도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도달은 아니지만 이끌어 가라는 지침은 있다. 5. 개인이 부양하는게 아니고 사회가 부양한다는 것이 우선

성명	인상 깊은 점 또는 느낀 점
<p>정미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와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 2. 경쟁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포커스 3. 장애인, 청소년 등 삶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삶의 결정권, 본인 의사 중시 4. 도서관 정형화에서 벗어난 개방적인 사용
<p>김수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과 자유 2.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3. 주택보조금 지원 4. 자유롭고 큰 규모의 도서관 5.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독립 6. 노인, 장애인 등을 나라가 돌본다. 7. 열정 8. 복지서비스 결정 시 선별도구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 9. 뭉크의 절규, 비켈란의 부활
<p>신여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국민에게 평등한 보편적 복지 2. 신뢰가 기반 된 대화, 관계의 중요성 3. 장애아동, 장애우에 대한 인권 중시 4. 학업 우수자보다는 학업에 뒤떨어지는 아동에게 집중하는 수업 5. 수치화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로 제공하는 복지
<p>박재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화와 토론의 문화 2. 훈련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신뢰사회 3. 차별없는 평등의 가치 4.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동의 노력 5. 열린 공간, 공공시설의 공유 6.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시설
<p>최주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2. 사회 전반에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신뢰사회 3. Passion, 열정 4. 확실한 목표, 다양한 시도